

창업 아이디어까지 지킨다...‘모두의 창업’ 보안 강화

중기부, 정보 유출 계기로 개인정보 관리 기준 정비 암호화·비정상 접근 차단...공공 플랫폼 신뢰 회복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지원 플랫폼 ‘모두의 창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및 창업 아이디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보안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최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정보 유출 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기존 회원 탈퇴 후 5년간 보관하던 개인정보 관리 기준을 개선해 이용자 유형에 따라 즉시 파기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아이디어 등 사업 관

련 핵심 정보도 별도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생한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지난 5월 15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는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심사평,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뿐 아니라 예비 창업자의 사업 구상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기부는 이후 국정원의 보안 취약점 분석과 외부 보안 전문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진단을 바탕으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우선 정보 접근 통로인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과 포함 정보를 줄이는 방식으로 시스템 구조를 개선한다.

또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신규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API 접근 기록을 모두 시스템 로그로 관리해 이상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유출 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웹 크롤링 방식의 비정상적인 정보 수집을 차단하기 위해 자동 탐지와 차단 기능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관리 기준도 대폭 손질한다.

현재 ‘회원 탈퇴 후 5년간’ 유지하던 개인정보 보관 기준을 이용자 유형별로 재정비하고, 일반회원의 경우 탈퇴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관리 체계를 변경한다.

창업 지원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창업 아이디어 보호 수준도 높인다.

정보 접근 권한 역시 최소화한다.

개인정보와 창업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관리자의 범위를 줄이고, 사전에 승

인받은 최소 인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 체계를 재설계할 예정이다.

또 중기부는 정보 유출로 불안을 느끼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 보호 조치와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피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이용자 지원에도 나선다.

국정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공 정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8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모두의 창업’ 2기 프로젝트 모집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중기부는 17개 시도 현장 간담회 당시 2기 모집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높았던 점,

추경을 통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예산 구조상 해를 넘겨서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시행 배경으로 설명했다.

2기 선발 인원은 1기(5000명)의 2배에 달하는 1만명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 ‘창업 3년 이내 재창업자’에서 ‘창업 7년 이내 재창업자’로 확대됐다.

또 지역 대학의 창업동아리 500팀 이상이 참여하는 ‘모두의 창업 대학 리그’와 초·중·고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창업 교육 운영’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방학 창업캠프 경진대회’도 진행한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와 싱가포르, 인도 등 해외를 무대로 한 ‘글로벌 리그’도 신설됐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한전KPS, 미래 에너지 전문인재 육성

신입사원 대상 직무별 합숙교육...현장 역량 강화

전력 설비 정비 전문기업 한전KPS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252명의 입사를 마무리하고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룰 전문 인재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전KPS는 최근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입사식을 개최하고, 본사 인근 인재 개발원에서 직무별 맞춤형 합숙교육을 시작했다

이날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됐으며, 기본 소양 교육과 함께 사무·전기·기계 등 직무별 전문교육을 이수한 뒤 전국 사업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전력 설비 정비와 안전관리, 조직문화 이해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신입사원들이 현장 적응

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에너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입사식에서는 회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환영 행사도 진행됐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신입사원들에게 “한전KPS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열정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신입사원들에게 직접 회사 배지를 달아주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SK텔레콤은 최근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피지컬 AI·로보틱스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과 기술 협력 및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호타이어, 2분기 매출액 1조3328억원 달성

영업이익 1822억원 기록...전 분기 대비 24% 증가 고인치·EV 타이어 중심 제품 믹스 개선 질적 성장

금호타이어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3328억원, 영업이익 1822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매출액은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신차용(OE) 타이어 공급 확대와 고수익 타이어를 비롯한 교체용(RE) 타이어 판매 증가에 힘입어 1조 3328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4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분기 매출 1조원 이상을 이어갔다.

특히 유럽에서는 신차 판매 효과와

유통채널 다변화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신제품 및 고인치 타이어 중심의 전략적 제품 믹스를 강화한 결과,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인 4209억원을 기록했다.

또 2분기 영업이익은 1822억원으로 전분기(1470억원) 대비 24% 증가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판매 확대와 고인치·EV 타이어 등 고수익 제품 판매 증가가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금호타이어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

의 판매 전략을 지속하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이어가고 있다.

2분기 집계 결과, 18인치 이상 고인치 제품 비중은 47%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OE 매출 기준 EV 타이어 공급 비중은 25.1%를 달성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실적 가이드선으로 매출액 5조 1000억원 달성, 18인치 고인치 제품 판매 비중 47%, EV 타이어 공급 비중 30% 달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미국 관세 정책과 중동 지역 분쟁 등 비용 증가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글로벌 매출 확대 및 고수익 제품 중심의 질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

SKT, 피지컬 AI 스타트업 협력 로보틱스 분야 생태계 등 강화

SK텔레콤이 국내 피지컬 AI(Physical AI) 스타트업과 협력을 확대하며 로보틱스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SK텔레콤은 최근 서울 종로구 SK 서린 사옥에서 ‘피지컬 AI·로보틱스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과 기술 협력 및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SK텔레콤을 비롯해 SK 그룹 AI위원회, SK하이닉스, SK AX 등 그룹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피지컬 AI·로보틱스 분야 스타트업 8개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함께했다.

참여 기업은 가우스랩스, 리얼월드, 마키나락스, 씨메스로보틱스, 위로보틱스, 유이로보틱스, 컨피그인텔리전스, 홀리데이로보틱스 등이다. 이들 기업은 휴머노이드와 웨어러블 로봇, 산업용 협동로봇,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 등 피지컬 AI 전반에 걸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SK텔레콤의 피지컬 AI 사업 추진 전략을 소개한 데 이어 각 스타트업이 핵심 기술과 사업 현황,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좌담회에서는 제조·물류·서비스 산업 현장에서의 공동 실증과 사업화 가능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AI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디지털 트윈, AI 모델 등 SK그룹의 AI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로보틱스 기술을 연계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사학연금, 벤처투자 1000억원 출자

위탁운용사 5곳 선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국내 벤처투자(VC) 블라인드펀드 운용을 맡을 위탁운용사 5곳을 선정하고 총 1000억원 규모의 출자에 나선다.

사학연금은 IMM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LB인베스트먼트, 우리벤처파트너

스, 인터베스트를 국내 VC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출자 규모는 총 1000억원이다.

이번 출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아카데미홀 대관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